

“아이들의 등교 설레는 여행으로” ‘영암 스쿨 홈즈’ 프로젝트

영암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사업자 설명회 개최

다정한 행복배움터 구축 위한 교사들 열정 빛나

영암교육청(교육장 김성애)은 27일 영암혁신교육지구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교 관리자와 업무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삶터로서 미래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즐거움과 소통이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간혁신사업 ‘영암 스쿨 홈즈’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영암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는 ‘사용자참여 교실 공간디자인’ 사업에 7개교 14개 교실, ‘소통과 나눔의 교육협약실 구축’ 사업에 6개교가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이날 실시한 학교공간혁신 연수 강사 김정희 교사(강진 작전중)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김밥을 파격적으로 설계해 짓거나 알록달록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것만이 학교 공간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간혁신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작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등교를 설레는 여행으로 여길 수 있도록 교실을 다양하게 다듬는 것이 공간혁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업자 설명회에 참가하여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공유한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간디자인

에 참여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정 중심 공간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씬, 삶, 배움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상상과 필요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물어보고,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암교육청은 2021년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공간주권 함양, 학교교육공동체의 성장과 협력 공간 조성 등 민주적 학교문화 혁신드라이브를 건다. 김성애교육장은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한다. 학생을 둘러싼 모든 배움 생태계 혁신의 첫걸음이 교실과 학교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나의 집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머물고 싶은 학교, 다정한 행복배움터를 선물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고흥교육청, 경찰·학부모와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어린이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준수 등 교통사고 예방 위한 홍보활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와 녹동초(교장 김향희) 학부모회 임원, 녹색어머니회 회원,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27일 오전 녹동초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녹동지역의 출근길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교통안전 캠페인 후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및 녹동초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녹동초 등하굣길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녹동초 통학로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정지선 피리물기 해결 방안, 주정차 CCTV 가동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김정희 교육장은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의 중요성의 강조했다.

또한, 김진천 고흥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녹동초 정희정 학부모회장은 녹동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녹동초 학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이자 사명”이라며 “올한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교육청, ‘새싹교사 실력쑥쑥 직무연수’ 개강

유·초·중학교 교육실경력 2년 이하 교사 34명 대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지난 23일 유·초·중학교 교육실경력 2년 이하 교사 34명(유·초등 19명, 중등 15명)을 대상으로 ‘새싹교사 실력쑥쑥 직무연수’를 시작했다.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게 될 이번 직무연수는 ‘평범한 옆 반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학급경영 꿀팁’이라는 진도혁신교육지구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규·저경력 교사의 직무수행 역량 신장 및 관내 교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 내용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작하는 학교 혁신’, ‘교직업무 완전정복’, ‘교육과정 구성 원리와 실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관계 중심

의 학급 세우기’, ‘놀이로 풀아가는 학급경영’, ‘배움 중심 수업의 설계와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수업과 평가 일체화’ 등 학급경영과 수업, 생활지도와 교직실무를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박현승 석교초 교사는 첫날 연수를 받고 “유명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옆 반 선생님께 들는 실무 중심의 강의라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연수도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문포 교육장은 신규·저경력 교사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세 확립 및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 혁신 역량 함양을 강조하며, “진도교육의 성공은 선생님의 수업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지원 체제 구축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은 27일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소센터 합동강의실에서 초등돌봄전담사 25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학교 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돌봄

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기초학력이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하

는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부진아를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완도 학교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전라남도 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 보성회천초등학교의 홍윤비 교감을 초청하여 “기초학력의 이해와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돌봄교실에서 적용할 만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돌봄전담사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학교 간 우수사례 발표 및 상호 컨설팅 △순길 따라 요가명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였다. 완도=이민희기자

